

“6차산업 활성화에 박차”

최용득 장수군수, 취임 2년 기자간담회서

최용득 장수군수(사진)는 지난 4일 민선 6기 취임 2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2년은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평생생태관광지 지정 등 각종 사업 유치하며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사업 유치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천천~장수 IC 군도개설사업, 장수~장계·장수~임실간 국도개량사업 등을 통한 물류기반을 활성화하고 식품기업유치를 통한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을으로 6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이



다. 또한 방화 등·와동자연휴 양립을 비롯해 장수승마장, 랫츠러닝장 장수목장 등 기 구축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군 대표 관광지육성,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생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생활개선회 회원들 무주 집결

농업 6차 산업화 역량강화 워크숍 태권도원서 개최

전북생활개선회 농업 6차 산업화 역량강화 워크숍이 6일까지 1박 2일간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전북도연합회(회장 유연숙)가 주최하고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시군 생활개선임원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5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전북농업기술원 과장 등 국장, 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이상철 회장, 농촌여성신문사 임평자 회장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전북생활개선회 농업 6차산업화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어머니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실습에 참여하고 체험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회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삼락농정의 이해와 융복합 농업”, “농업 6차 산업화 농가접목 실천모델 성공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6일에는 “생활과제 실습”과 “스피치 훈련 및 교육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금강래프팅 체험과 태권도원 시설견학 및 무주군 탐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생활개선회는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4백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무주군연합회에서는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과 도자기·한지 공예, 압화, 천연염색 등 과제교육, 제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옥수수과 김장배추 2모작 재배 실습을 운영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주도하는 등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만전 안전관리요원 배치 완료

완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친다. 완주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8월31일)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올해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6개소)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요령,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익수자 심폐소생술 시연 등 교육을 실시하고 고산 오성교 등 22개소에 오는 8월 28일까지 전격 배치·운영된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배치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 등으로 물놀이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올해는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업인을 위한 역할 다할 것” 무주군 농협발전상생협 개최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정재호)는 5일 농협 간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공동발전을 위해 무주군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주군지부를 비롯해 무주농협, 구전동농협의 상생협의회 위원 18여명이 참석하여 농업의 경영역신, 지역사회의 농협이 역할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울러, 농협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 농업인 및 고객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로 했다.



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무주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로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간지부장 정재호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농업, 농촌의 실익을 높이고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봉사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뜻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부터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 도예전시회

무주군 최북미술관에서는 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기획전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전이 개최된다. 15명의 참여 작가들은 모두 무주군 도자기 동호회 “토리도에” 회원들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유(김순자)를 비롯한 ‘연꽃문양 향아리(선인숙)’, ‘동행(이미애)’, ‘순정(이현정)’, ‘대자연II(이정은)’, ‘소원(이연우)’, ‘들속(이재우)’, ‘인연(유혜란)’, ‘한마음(이정숙)’, ‘배려(유순옥)’, ‘어울림(이영주)’, ‘소풍(김순숙)’, ‘강산(전선자)’, ‘무제(박천주)’ 등 30여 점의 작품(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 대회 및 향토문화미술대전 수상작)을 선보인다. 토리도에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도예기 김삼곤 선생(무주전통

공예공방 진목도에 /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등 수상)의 작품 진사요변 대병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흙을 사랑하고 흙이 좋아 그릇을 빚기 시작한 토리도에 회원들의 지난 4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 유수의 대회에도 출품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기대 이상의 감동을 만끽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최북미술관은 제1종 공립미술관(관람시간 09:00~18:00 / 월요일 휴무 / 관람료 무료)으로 괴석도와 산수도 등 4점의 진품을 비롯해 110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플리츠

완주군 지방세 설명회 ‘호응’

완주군의 ‘찾아가는 지방세설명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읍면 이장회의 등 주민이 모이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운 세정을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관심을 이끌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온라인 납부, 자동이체, 환급제도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올 8월부터 인상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배경 및 인상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안전한국훈련 ‘우수’

진안군은 지난 4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전국 253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일간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훈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실시, 평가·개선활동 등 4개 분야 23개 평가지표에서 A등급에 오른 것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훈련을 통해 민·관의 높은 참여율과 적극적인 훈련진행에 평가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전 공직자가 재난상황 대비 비상소집에 100% 응소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일반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컸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플럼코트 시범재배 추진

완주군이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재배되지 않던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시범재배 추진에 나섰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아 만든 새로운 과종으로, 살구의 맛과 자두의 향기로운 향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황산화물질 함량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돼 맛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농가와 유통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출하 시기는 복숭아 조생종보다 1주일 정도 빠르며 속기는 2주정도 짧으며, 품질은 하모니, 사이니, 티파니, 심포니 등이 있다.군은 플럼코트 지역적응실증시험을 위해 초 이서, 용진, 구이 등 8ha 규모로 30농가에 하모니, 심포니 종의 플럼코트 2,804주를 지원했으며, 토양, 재식요령, 병해충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플럼코트 농가 육성은 기존과 일과 차별화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을 목적으로 현장지도 강화 및 연구회를 육성하고 인성적 재배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모집한다. 피해 방지단은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수확기인 7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농가로 직접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지역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11개 읍·면(총기사동 제한지역 제외)이며, 중점 포획대상은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이다. △1권역=진안, 상진, △2권역=용담, 안천, 동향, △3권역=백운, 성수, 마령, △4권역=부귀, 정천, 주천 등이다. 피해방지단 신청자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3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산림과에 문의(063-430-2432), 신청은 7월 13일(수)까지 각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청은 어떤 일을 해요’

진안마령초 4학년 학생 견학·체험

진안군은 5일 마령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군청을 방문해 군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하는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공무원체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초등학교 주체중심 통합교육과정 마을나들이’의 일환으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준비하면서 진안군의 역사와 유래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교육자원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직접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체험에 임했다. 학생들은 군청실명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진안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희정)을 방문하여 위원장에게 노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체험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바로 알기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7~8월 무더위 짧은 농한기 동안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인 ‘마음 꽃 피는 교실’과 ‘마음 꽃 피는 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한지 공예, 원예치료, 발 마사지, 웃음치료 등 흥겹게 어울리고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마음 꽃 피는 교실’은 6월 14일부터, 찾아가서 진행하는 ‘마음 꽃 피는 마을’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울척도검사를 통해 우울감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농한기에 마음

꽃 피는 교실 프로그램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 꽃 피는 마을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다. 마음 꽃 피는 마을 프로그램은 신청한 마을로 직접 찾아가 요가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하루하루 무료하고 고달픈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이승호 소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모든 군민들이 가슴에 마음 꽃이 활짝 피어 진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